

[수필]

낙시와 인생 공부

작년 여름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강가에 가서 밥낙시를 했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에는 락조가 강물 우에 쏟아져 마치 금빛 테두리가 펼쳐진 것만 같았다. 밤의 장막이 낮게 드리워지고 만물이 고요한 가운데 미풍이 수면을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과 교차되면서 한국의 평온한 야곡을 이루는 듯 하였다.

강가에 조용히 앉아 낙시질을 할 때면 모든 번뇌와 잡념은 부드러운 미풍에 끌려가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훈훈하고 따뜻하다.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면서 수면 우에 빨간 낙시찌가 빛을 뿌리는 것을 보는 순간, 마치 속세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속으로 돌아온 것만 같다.

새벽이 슬그머니 다가오자 우유빛 물안개가 따뜻한 산골짜기에 가득차기 시작한다. 먼곳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새벽을 알리는 수탉들의 울음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헤치고 은은하게 들려오고 가까이에서는 낙시군들이 속삭이는 소리도 도란도란 들려온다.

아침해가 뜨자 강변의 희뿌연 물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짙은 녹색 옷을 입은 나무와 수려하고 우뚝 솟은 산들, 푸르고 맑은 강물이 그 진면모를 환히 드러냈다. 풀잎에 매달린 령롱한 이슬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공기중에 흩날리고 화초의 맑은 향기가 가득차서 세상 이 유난히 아름다워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자연이 선물한 환호한 환경 속에서 청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낙시질을 하노라니 인생도 대자연의 신비한 창조물처럼 끝없는 놀라움과 가능성으로 가득차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낙시는 자연과의 친밀한 접촉이자

생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람들은 흔히 낙시를 간단하고 단순한 야외 여가놀이처럼 생각하지만 실지로는 그 내면에 인생의 깊은 철리와 끝없는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다. 고요한 여름밤, 낙시줄에 매달린 낙시바늘이 물속에 가라앉을 때 나의 마음도 이 고요한 밤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며 바쁜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느슨한 시간적 여유와 공간을 가져본다.

낙시는 어찌 보면 낙시군과 시간의 대화인 것이다. 강가에 조용히 앉아 낙시찌에 두 눈을 집중하면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절주가 빠른 현실사회에서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여 즉각적인 결과를 갈망하지만 정작 그 과정 자체의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낙시는 단순한 물고기잡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준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그 자체의 존재가치가 있으며 모든 생물은 자신의 방식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바 자연의 생태균형을 보호하고 생태자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견지와 끈기는 낙시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 자신이 예기한 마음에 드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강가에 몇시간, 심지어는 하루종일 앉아있을 때도 있다. 이러한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견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경험이 나로 하여

금 인생의 길에서 성공은 꾸준히 견지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그 어떤 도전과 곤경에 직면하든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속하는 그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도리를 가르쳐주었다. 매번 낙시질할 때마다 물고기나 낙시에 걸릴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정을 즐기는 순간이 중요한 것만큼 빈손으로 돌아가도 마음속에 만족감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인생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될 수는 없는 만큼 좌절과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인생 경력으로,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간주하면서 실패를 인정함과 동시에 교훈을 얻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무도 고독을 피할 수 없다. 고독은 자유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고독을 직시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힘과 성장의 기회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다.

나는 가끔 혼자 강가에 가서 낙시질을 하면서 나 혼자만의 평온한 기분을 즐길 때가 있다. 이럴 때면 나는 자신의 인생을 사고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살펴보고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에 가려진 진실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마치 세상과 격리하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독과 평온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낙시는 나에게 소중함과 감사함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물고기 한마리

▣ 태승호

를 낚을 때마다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이런 만족감은 물고기를 낚은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대자연간의 친밀한 접촉 과정에서 체험한 평온과 기쁨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생활 속의 매 순간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두 인생의 려정에서 없어서는 안되거나 부족한 부분이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낙시질을 하면서 나는 뜻이 맞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다. 친구와 함께 낙시질을 하면서 낙시에 대한 서로간에 경험담을 전수하고 인생이야기도 나누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며 외로운 마음도 서로 위로한다. 이러한 우정은 순수하고 진지하여 나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하였고 이 친구들이 내 인생의 려행길에서 귀중한 재산임을 깊이 느끼게 하였다.

낙시는 자연이 나에게 준 더없이 소중한 선물로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풍부함과 깊이를 체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생활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게 하였으며 미래 생활에 대한 신심도 주었다. 낙시질을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낚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자세로 이 려정을 즐길 수 있느냐에 있다.

강가에 앉아 낙시대를 들고 물 우에 조용히 떠있는 낙시찌를 응시할 때마다 나의 마음은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차있다. 이것은 단지 낙시 려행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와 인생의 탐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낙시의 지혜로 인생을 깨닫고 생활을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추구할 것이다.

[시]

▣ 손봉금

옛 (외 2수)

옛 달이는 날이면
엄마는 방구들에서
불이 날 지경으로
온종일 옛을 꿰이셨다

옛은 너무 뜨거워 부글거리고
급기야는 곱쪽해져서
달콤한 옛 냄새로
방안 구석구석까지
꽝 채워주었다

옛은 엄마의 땀방울이었던 것을
잘된 옛을 보면 짓던
엄마의 미소였던 것을
어린 나는
옛을 먹으면서도 몰랐다

옛을 켜면서 실눈이 되시던 엄마
우리 입에 넣어주시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하시던
울 엄마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희로애락을 달여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시던
하얀 옛 한가락은
엄마의 빠마디였음을

용서

깨진 마음에 꽃잎을
살짝 올려놓는 일이
용서라는데
작은 가슴에 눈물이 반짝이면
죄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숨겨두었던 서운함과
아픈 곳은 감춰두어도
세상은 여전히 맑고 고와
내 상처만 쓰라립니다

바람에 날려 보내고 아니면
바다에 띄워 보내세요

나무잎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해별이 나를 꼭 포옹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환합니다

용서는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게 피어난 꽃에도
향기는 있고
꽃들은 앞을 다투어 피어납니다

가슴에서 응어리진 것을 꺼내면
나 자신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만남의 장소

휴일은 이방인도 품에 안고
대림동 골목
식탁 우에 정이 들고
회포 담긴 술잔이 손끝을 따라
기억의 둥근 궤도를
천천히 맴돈다

한잔 술에 고향 풍경을 띄우면
저가락은 허공에 웃음을 그리고
낡은 트로트 한국 흘러나오면
고달픈 일상은 잠시 물러간다

말없이 전해지는
고향의 실내등은
잔잔한 마음 한켠으로 번져간다
잔 부딪칠 때마다

고향 사투리 꽃을 피우고
막걸리엔 설움이 살포시 섞인다
만난다는 것은
헤어져야 한다는 다른 말

바람은 여전히 차가만 한데
이 땅에 뿌리내리려 마음 잡는다
어느덧 익숙해진
타향의 골목에는
삶의 이야기로 물들어간다

[시]

▣ 양명금

계모의 사랑 (외 3수)

해살처럼 따스한 손길이
내 어깨에 닿을 때
마음은 고요한 바다가 된다

계모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기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변해도
변함없었던 사랑

그대의 웃음은 봄비가 되어
내 마음의 상처 씻어내렸네

그대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멜로디
내 앞길을 밝히는 별이 되네

이제 내 모든 날을 다 바쳐
그대가 나를 지켜주셨듯
나 그대를 지켜주는
보호신이 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바람이 그이를 흔들어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눈물로 엮은 우리 이야기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간직하리라

각성 (觉醒)

수술등이 꺼진 뒤
나는 또 다른 나로 돌아왔다

고통이 파놓은 그 골짜기에
어둠보다 무거운
깨달음이 자리잡았다

의식 (意识) 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메시가
내 몸을 해부할 때

령흔의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미지의 령역을 발견했다
아름은 살아있다는

가장 잔인한 증거이다

호흡이 아직 붉은 동안
사랑할 것들을
단단히 안아두리라
있을 때 잘하리라

보슬비를 맞으며

산책길에 내리는
은빛 실타래
하늘에서 땅까지
고운 막을 찌내리네

우산도 피지 않은 채
얼굴 들어보니
보슬비가 속삭이누나
네 마음도 축축하냐고

창가에 앉아
차 한잔 따르면
커피잔에 비치는 비
마음속에도 내리네

저녁이 오면
보슬비는 안개가 되어
마을을 감싸안고
모든 슬픔을 씻어내려요

삶의 찬가

해살은 매일 새롭게
창가에 스며들고
바람은 침없이 노래하며
땅을 어루만진다

한방울의 비발도
쉽없이 돌을 뚫고
한송이 꽃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장식한다

살아숨쉬는 삶이여
넌 참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멜로디로다

[시]

▣ 정정숙

하늘 이불 (외 2수)

엄마의 김치항아리

새콤 달콤 매콤한
엄마표 배추김치
동네방네 별맛이라 소문났네

모진 세월 매서운 바람에
터실터실 갈라터진 손
따스한 그 손으로 만든 배추김치
겨울철 추위 녹여준다네

색깔 곱고 빛깔 고운

빨간 배추김치
아삭아삭하고 짹한 맛 일품이라네

한 겨울에도 땀방울 머금은
김치움에 동그리 모여앉은
엄마의 모습 닮은
둥글둥글한 김치항아리
그 속에서 우려내는 엄마 향기

아,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 속에 진하게 안겨오네

[미니수필]

▣ 최정옥

경청

경청 (敬听) 은 일종 침묵의 미덕이자 령혼의 수양이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행위는 부부간, 부자간, 친구간, 동료 사이를 이어주는 실타래와 같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빈 얼굴로 응시하거나 고개를 돌린 채 무관심을 드러내는 경우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한 채 말을 중간에 자르며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경우를 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한참이나 구구절절 말하는데 금방 잠에서 깨어난 듯 “뭘, 금방 뭐라 했지? 다시 말해봐.” 하며 대방의 말을 마이동풍으로 지나치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작두로 뭉텅 자르듯’ 상대의 말을 중동무이하고는 ‘십만팔천리’나 다른 화제를 붙쑥 들고 나와 말하던 사람의 기분을 가차없이 잡치게 한다. 상대에게 무시당한 기분 이어서 “이 사람 정말 달궜어! 그닥 짙은 사람이구나!” 하는 반발심이 생긴다. 이때 이미 했던 말을 다시 해볼

‘식욕’이나 생기겠는가.

나도 이런 경우에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라는 느낌과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단순한 실례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자아수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그렇다 하여 할 말, 안 할 말 입 끝에 달고 횡설수설하는 말들을 죄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언급하려는 경청이란 정상적인 대인관계와 서로 소통할 만한 사이에서 직선 (面対面) 적인 소범위내에 오고 가는 경청을 말함이다.

진정한 경청자는 다르다. 말하는 이의 눈빛에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준다. 그 진지한 태도 앞에서는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 차가

운 대화 상대에게서는 거리감이 생기지만 경청하는 이에겐 기대고 싶은 신뢰가 피어난다. 그것은 성숙된 품성과 우아한 인간성의 꽃이 그들에게서 피어나는 까닭이다.

누군가 슬픔을 털어놓을 때 “그러면 뭘써. 그런 말을 아예 하지도 마. 듣고 싶지 않아.”하며 쑥덕 자르기보다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 정말 속상하겠어.” 하면서 받아주는 순간, 상대의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밝아지며 그 마음속 불균형이 다시 균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경청은 상대의 마음 속에 다가가는 자못 고귀한 의식이다.

경청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상대방에 대한 령의를 지키며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존경스러운 사람